

❖ 양파 노균병

- 1차 노균병은 묘상, 정식 전, 월동 전후로 양파가 생장하지 못하고 잎이 휘는 증상을 보이며 고사함. 정식 후 방제가 필요함*
- *멀칭된 비닐 위의 흙까지 살균제가 충분히 묻도록 살포함
- 주로 월동기 이후 봄에는 2차 노균병이 잎에 열린 노란색 병반으로 나타나고 병이 진전될수록 회색빛 포자덩어리가 잎을 덮음



[양파 노균병 피해(2월)]



[양파 노균병 피해(3월)]



[양파 노균병 피해(5월)]

마늘·양파 겨울철 관리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!

1

마늘 심기가 끝나고 비닐 덮기를 해 주세요 

- ❖ 한지형 마늘 : 파종 후 안전한 월동을 하기 위해 짚 또는 비닐로 덮음
 - 덮는 시기 : 11월 중하순경, 잡초방제 3~4일 후
 - 걷는 시기 : 4월 중순경, 가뭄지역은 흙을 덮음
- ❖ 난지형 마늘 : 수분공급과 초기 생육 촉진을 위해 비닐 덮기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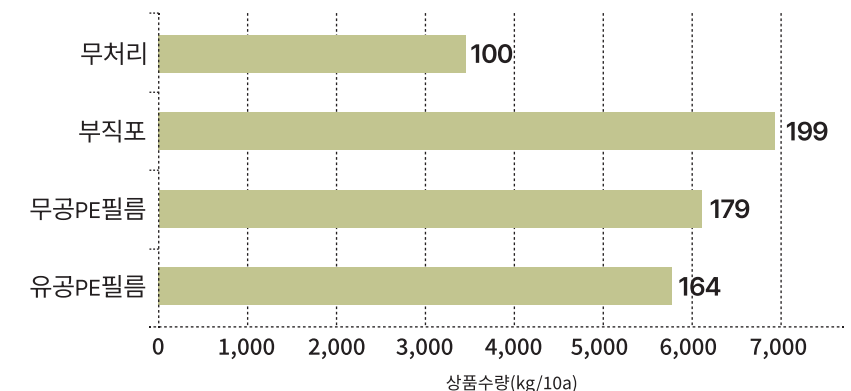
2

양파 심기가 늦어진 포장은 비닐, 부직포를 덮어 주세요 

- ❖ 논양파 재배에서 아주 심는 적기인 11월 상순보다 늦은 11월 중순이후 묘를 심은 경우 부직포를 이중으로 피복(경남 사례)
 - 피복시기 : 아주심기 후 10일 전후(11월 하순 또는 12월 상순)
 - 피복방법 : 부직포를 고정 핀을 이용하여 2~3m 간격으로 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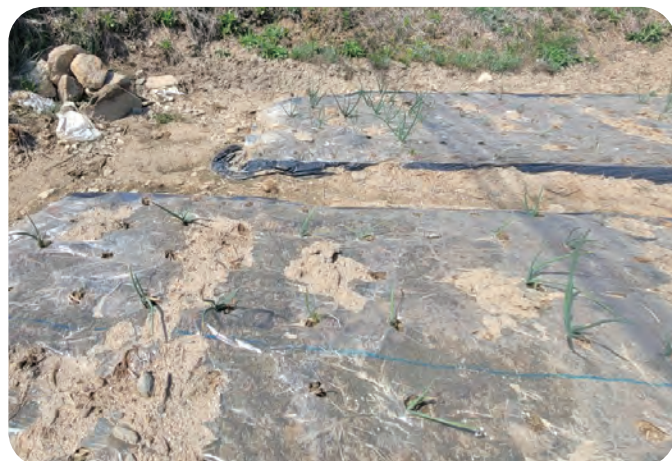


[양파 부직포 덮기]



3

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주세요



[물빠짐이 나쁜 포장]



[덮기 잘된 포장]

4

해빙기에 서릿발 피해가 예상 됩니다



❖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포장에서 흙이 얼었다가 녹을 때 발생

❖ 세심히 관찰하여 솟구쳐 올라온 마늘·양파는 즉시 땅에 잘 눌러 주고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덮기 실시



[양파 서릿발 피해]

5

마늘·양파 병해충 방제가 중요합니다



❖ 흑색썩음균핵병

- 2~3월 저온기에 주로 발생하며, 수확 시기까지 피해가 발생함. 병 발생 초기에는 잎 전체가 노랗게 변색되고 결국 포기 전체가 말라 죽게 됨
- 농기구(장화, 트랙터 등)에 묻은 흙에 의해 전파되므로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이 심한 곳은 집중 방제와 출입을 자제함



[양파 흑색썩음균핵병 피해증상]

❖ 고자리파리

- 비행하는 성충은 방제가 어려우므로 황색 점착트랩을 이용하여 예찰 및 방제함
- 유충은 방제를 위해 정식 전(가을), 월동 후(봄)에 등록 약제가 지제부까지 닿을 수 있도록 포기 관주 하는 것이 효과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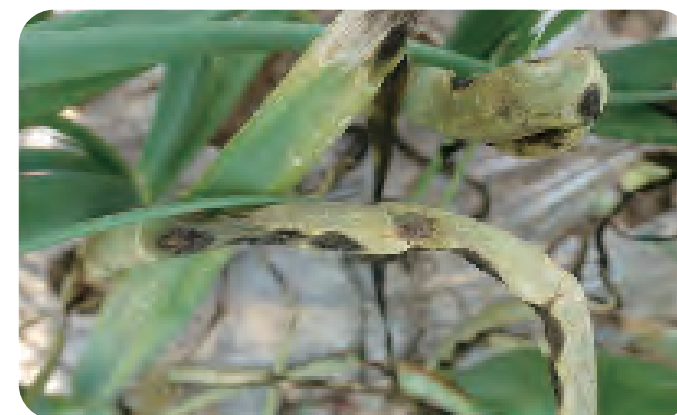


❖ 잎마름병

- 유묘기, 4월 이후 발생하여 수확기까지 잎에 피해를 주는 병해임. 병 발생 초기에는 잎 끝부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며, 4월 이후에는 노균병 감염이 된 부위나 햇빛데임이 있는 곳, 상처 등에 발병함. 병징은 잎에 둥근 무늬와 함께 검정색 포자를 형성함
- 병 발생 초기에 주기적인 살균제를 살포하여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함



[유묘기 양파 잎마름병 피해(12월)]



[생육기 양파 잎마름병 피해(5월)]